

국민학교 세대인 우리에게 학교란 생애 첫 사회생활의 장이었다. 이때 학교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처음 배우게 되는 공간이다. 박정선 작가의 방은 이러한 욕심에 대한 노골적인 유희이다.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박정선 작가의 방에 놓인 모든 작업들은 결국 작가를 지칭한다. 모두 작가의 청각, 시각, 촉각적 대체물들이다. 우선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관람객은 각종 모터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교실의 바닥에 놓여진 장난감 자동차들에는 팬(fan)이 달려있는데, 이것은 쉼 없이 돌아간다. 또한 교실 중앙의 텔레비전을 통해 전시된 영상에서는 직접적으로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온다. 이렇듯, 공간을 가득 메운 기계적인 모터 소리는 결국 작가의 숨(호흡)을 칭한다. 배터리로써 호흡하는 장난감 자동차들은 작가가 조종할 수 있는, 일종의 숨 쉬는 기계이다. 작가가 머물렀던 공간은 이처럼 음향으로써 그의 호흡을 추억한다.

기계적 음향에 놀랐던 관람객은 이내 바닥에 흩뿌려진 반짝이 가루에 신경을 집중하게 된다. 바닥의 반짝이 가루는 ‘미술작품은 조심히 대해야 한다’고 배워온 우리에게 걸음걸이를 조심하게끔 한다. 실제로 전시 오픈 후 며칠간은 바닥의 반짝이들이 전혀 형클어지지 않은 채 유지되다가 몇 명의 용감한 관람객이 발자국을 남기고 간 후에야 비로소 작가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었다. 작가는 한 번 붙으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반짝이 가루를 통해 자신의 흔적을 널리 퍼뜨리고자 의도했던 것이다. 한편, 여기서 사용된 반짝이 가루의 색들은 교실 안에서 발견되는 사물들(예를 들어 게시판의 부직포 색상), 혹은 교실 내부 공간의 색이다. 즉, 박정선 작가의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이라면 자연스레 작가와 공간의 직접적인 흔적을 ‘묻히고’ 나가게 된다.

청각과 촉각을 노골적으로 유혹했다면, 작가는 시각적 측면에서는 다소 자신을 숨기고자 하였다. 교실 중앙에 설치된 비디오는 작가의 상반신을 클로즈업한 영상인데, 작가는 끊임없이 자신의 숨으로 화면을 뿌옇게 흐린다. 이는 “가끔 너무 투명한 외부의 시선들로부터 나를 조금 가리고 싶을 때에 관한 작업1)”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며 우리가 배우게 되는 억울함 중 하나는, 숨고 싶은 때일수록 더 심하게 노출되곤 한다는 것이다. 이 부조리는 영상에서도 언급된다. 작가의 얼굴 앞에 놓인 유리에는 ‘here’라는 글씨가 쓰여있다. 화면이 투명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작가가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자 입김을 내뿜어 화면을 뿌옇게 하면 비로소 글씨가 선명해진다. 이처럼 가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결국엔 존재를 더욱 확실히 확인시켜 주게 되는 셈이다.

작가가 한 달여간 머물렀던 공간을 방문하여 같이 호흡한 관객은 신발에 묻은 반짝이 가루로써 하루 종일(심지어 며칠간) 작가를 기억할 뿐 아니라, 자신만의 흔적을 남기며 다니게 된다.

박은아(큐레이터)